

새로운 대통령 정부의 최근 정책에 대한 퀸즈의 YWCA 성명

퀸즈 YWCA 는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미주 한인 이민 여성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40 년 동안 퀸즈 YWCA 회원들, 직원들 그리고 이사회는 미국의 자유, 기회 그리고 참여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성실과 상호협력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번영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고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이 나라를 발전적으로 이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민정책에 관련하여 행정부에 의해서 최근 취해진 조치는 우리 공동체의 혼란과 두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들이 이미 이민자, 비자 소지자 그리고 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동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민자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일들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시민 교육, 권리 워크샵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환경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퀸즈 YWCA 는 모든 향후 정보와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 언론과 경제적 지원, 자원 봉사자,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를 지원하하는 지역사회 구성원 그리고 회사들에게도 의존을 할 것입니다.

퀸즈 YWCA 의 회원들, 직원들 그리고 이사진들은 미국 시민이 된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민자들을 위한 이 지역의 이름을 건 단체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공평에 반대하며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 정의, 자유 및 존엄을 위해 계속 노력할것입니다.